

올해 마한문화제 10월 9~11일 개최

축제추진위 일정·개선 방안 논의
향토음식관 전문·다양화 등 보완
SNS 서포터즈 발굴 적극 홍보

나주 대표축제인 '제6회 대한민국 마한문화제'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나주시는 지난달 31일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열린 제1차 축제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축제 일정을 비롯해 축제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마한문화제는 2000년 전 나주 영산강 유역에서 위상을 떨쳤던 고대 마한의 역사와 당시 마한인이 향유한 생활 문화를 재조명하는 축제다.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東夷列傳)'에 기록된 마한인의 생활 풍습에 대한 각종 체험 부스와 경연, 먹거리, 전통 의식 재현 등 색다른 축제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이 축제는 지난해 마한문화축제에서 대한민국 마한문화제로 축제 명칭을 변경, 누적 관광객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호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도약했다.

축제추진위는 회의를 통해 방문 관광객들의 편의 개선 및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향토음식관 전문화 및 다양화 ▲세계 다문화음식관 운영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SNS 서포터즈 발굴 ▲핑크몰리·코스모스 생태 꽃단지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제5회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마한 상상 BIG 퍼레이드'.

다. 마한군무 전국대회, 마한인 복면가왕 등 경연과 마한 체험 부스·전시·홍보관 등은 향후 회의를 통해 적극 보완해가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대한민국 마한문화제를 통해 마한이 당당히 한국 역사의 한 부분임을 증명하고

마한의 적통은 나주라는 인식을 확고히 다져왔다"며 "나주를 대표하는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위 회의를 통해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보완·개선을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이창지구 행복주택 6월 착공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162억 투입 150가구 규모 2022년 준공

나주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인 이창지구 행복주택 건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창지구 행복주택은 사업비 162억 원을 들여 영산포 이창동 714-1번지 일원 7199㎡(2178평) 부지에 전용면적 21~44㎡

총 150가구 규모다. <조감도> 혁신산단 배후도시인 영산포 이창동 일대에 들어서 입지조건이 좋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돼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과 저소득층,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선 7기 역점시책이다.

나주시는 지난 2018년 10월 공동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복주택사업 시행협약'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을 거쳐 오는 3월 공사를 발주해 시공업체 선정을 거치면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준공 목표는 2022년 2월이다



나주시는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 무상제공을 비롯해 주택부지 주변 환경개선, 대중교통 체계 정비 등을 추진한다. LH는 국비 및 기금, 자체 예산을 투입해 주택 시공과 운영·관리를 책임진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창지구 행복주택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산단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침체된 영산포권 시장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빛가람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 내부 전시회 모습.

'소소하지만 나누고 싶은' 시민전시회 작품 공모

미술·사진·공예 등 21일까지

나주시는 시민의 문화 향유와 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빛가람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 시민전시회' 작품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소소하지만 나누고 싶은' 나만의 시민전시회'를 주제로 오는 21일까지 작품 전시를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출품 분야는 미술, 사진, 공예 등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개인 수집품, 소장품 등 전시 가능한 작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나주시는 건물 2층만 사용했던 전시공간을 올해부터 1층까지 확대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폭넓게 선보일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나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양식을 작성해 시 문화예술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혁신도시 호수공원 야외공연장 앞에 위치한 빛가람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은 시민 참여형 문화·미디어 콘텐츠 공간으로, 지난 2017년 10월 개관했다.

외벽 투명전광(LED) 유리로 건립된 전시관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최신기술을 장착해 시민 휴식 공간, 일자리 정책 홍보, 문화예술 전시관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야간에는 LED외벽을 활용해 시정 홍보 및 미디어아트 작품, UCC영상 등을 상영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나주소방서 동계 수난인명 구조 훈련

나주소방서는 지난 11일 광주염주체육관 다이빙 풀장에서 119구조대장과 구조구급팀장, 구조대원 8명이 참가해 겨울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2020년 동계 수난인명 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구조훈련은 겨울철 수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다양한 재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수난사고 관련 이론교육, 수중인명 탐색, 비상상황 응급처치, 합동수색 등 실전훈련 위주로 진행됐다.



나주소방서 119구조대장은 "겨울철 및 다가오는 해빙기를 대비해 수중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발생할 수 있는 수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

나주시 한달간 개별공시지가 산정

나주시는 13일부터 한 달간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나주시는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토지이용상황 등 각종 요인들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나주 지역 전체 38만9202필지의 67.1%인 26만1167필지에 대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

지와 산정 대상 필지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오는 4월14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열람할 수 있다.

이수정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31 제55회 광주일보 절 전국 마라톤대회

2020.3.1.일
AM 8:3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출발

대회개요

- 종 목 | 풀코스, 하프코스, 13km 코스
- 코 스 | 아시아문화전당(구. 전남도청) 출발
→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13km코스 경유)
→ 서창교(하프코스 반환)
→ 승촌보(풀코스 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

주요 운영안내

- 지 급 품 | 배번(기록칩 부착), 완주메달, 기록증(완주자), 간식 및 음료
- 개인시상 | 1위~30위까지 시상
- 특 별 상 | 원양부부상, 포토제닉상
- 단체특전 | 단체상 1~10위 시상(상세사항 홈페이지 참조)

문 의

http://mara.kjmedia.co.kr ☎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사)전남문화·(사)아시아문화

주관 광주광역시육상경기연맹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지방보훈청

협찬 광주은행

